

## “그가 틈을 타서”

❖ 사사기 13:24-4:4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 삼손

천사가 약속한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 자랄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딤나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자기 땅처럼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섞여 살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내 아내로 삼게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귀하게 얻은 아들답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본문 14:4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는 그가 블레셋을 칠 틈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혼란의 시대

사사기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들에게서도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삼손을 보면 삼손은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 가운데 가장 심각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동족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오직 정욕, 탐욕, 분노, 이기심, 복수심과 같은 일차적인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삼손의 복합성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손의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과는 달리 자기 백성에게 오시기 위해 스스로의 영광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손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가나안 사회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삼손이 살았던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은 ‘벤세메스’라는 도시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벤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충분히 그 부모가 가나안 신앙의 영향을 받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의 행태도 혼란스럽습니다. 13:25절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영이 삼손을 움직임으로써 그가 한 일은 딴에 가서 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때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14:4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지금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블레셋을 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 삼손에 대한 평가

몇 가지 이유로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에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함께 삼손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25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4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개인적인 정욕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자체가 삼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14:3절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그 여자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가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말미에서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정죄합니다 (삿 17:6; 21:25).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내 눈에 보기에 좋다”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한 이유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대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부분에만 집중하여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온 생애와 신앙과 인격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삼손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입다처럼 여호와와 영이 임한 사람도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4:4의 해석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는 말씀의 원문은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를 삼손으로 번역한 것이고 새번역은 “그”를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전후 문맥상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의 오류입니다.

사사기는 이 구절에서 삼손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딘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보고 한 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고집을 부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삼손의 정욕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악함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틈을 엿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50:19-21을 읽겠습니다.

#### ❖ 창세기 50:19-21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했던 일에 대해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본문은 그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형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막내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틈을 엿보고 있을 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큰 민족을 이룰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22-24을 읽겠습니다.

#### ❖ 사도행전 2:22-24

22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 은 30을 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유대인들의 분만을 해소시킬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대로, 이들의 악함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장로교인이라면 이와 같이 인간의 악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느꼈던 질투심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일부터 조장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형들이 질투심을 느끼도록 단순히 이용만 하신 것인가요? 삼손의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정욕도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가롯 유다의 배신을 의도하셨다면 유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창호나 이세돌씨와 같은 바둑 고수로 이해합니다. 이세돌씨가 저같이 오목도 잘 못두는 하수를 상대한다면 제가 어디에 돌을 둘지 흰히 내다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제 손을 붙들고 돌을 놓게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가 돌을 두도록 유도함으로써 철저히 농락하겠지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조정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간접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한 마음, 삼손의 온전치 못한 성품,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 단순히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이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생각과 행동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과 행동까지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저지른 행동을 좇아다니시면서 수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뜻을 펼치시며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며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저희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한 녀석은 졸고 있고, 다른 녀석은 밤을

먹으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도했던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습니다. 사람과 고양이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큼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고양이가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원인이 있어야 미래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불을 때야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항상 현재를 사시면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십니다. 소설 작가나 영화 감독이 작품 속의 등장 인물과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작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사실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 영적인 일을 분별함

고린도전서 2:10-16입니다.

#### ❖ 고린도전서 2:10-16

-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복음을 설명한 후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합니다.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하여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헛소리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까지 주관하심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한다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전부 파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



으로 충만한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하셨는지, 아이티에 지진을,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를 허용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토록 인류를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려 할 때에 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지, 내 안에 삼손과 같이 연약한 성품을 주셨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사사기 14:4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과, 내가 직접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삼손과 같이 악한 모습이 아닌 선한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 가치 있는 인생

여호와와 영이 삼손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틈을 엿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의 자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시간을 허비하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함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주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틈을 내주지 않고 당장의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을 누릴 기회만 찾다가 삶을 허비하거나,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든지만 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틈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이 불만스럽고 장래가 염려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쏟아 부을 기회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 기회를 틈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어떻게든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할 때, 더 배려하시고 인내하시고 베푸시며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생각해볼 질문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4-7조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4.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행 4:27-28, 창 45:4-5, 삼하 16:10,24:1, 왕상 22:23, 대상 10:4,13, 행 2:23, 롬 11:32-34)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 하에 들어 있다.

(1)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행 14:16)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신다. (시 76:10)

(2) 그리고 다른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며, 다스리시되,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 (창 50:20, 사 10:6-7,12)

(3) 그러나 죄는 피조물들(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므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도 아니거니와 죄를 승인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요 일 2:16, 시 50:21, 약 1:13-14,17)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5.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천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또는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두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1)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2)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3)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삼하 24:1, 대하 32:25-26,31)

(4)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5) 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6)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고후 12:7, 시 73편, 77:1,10,12, 막 14:66-72, 요 21:15-17)

6.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 (롬 1:24,26,28, 11:8)

(1)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신 29:4)

(2)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들도 빼앗으시며, (마 13:12, 25:29)

(3)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 (신 2:30, 왕하 8:12-13)

(4) 그와 동시에 그들을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내어 주시기도 하시며, (시 81:12, 살후 2:10-12)

(5) 하나님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 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박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두신다. (출 7:3, 8:15,32, 사 6:9-10, 8:14, 행 28:26-27, 고후 2:15-16, 벧전 2:7-8)

7.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교회를 돌보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롬 8:28, 사 43:3-5, 13-14, 암 9:8-9, 딤후 4:10)

2. 자신이나 타인의 악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3.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매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기회를 찾고 계심을 믿을 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